장애 딛고 은퇴경주서 여왕마 등극했던 루나를 기억하며…

# ‘희망의 아이콘’ 루나 이름 딴 경주 생긴다

작은 체격에 왼앞다리까지 절었지만
2009년 은퇴전까지 33전 13승 거둬
4월12일 ‘루나스테이크스’ 대회 개최

장애를 딛고 여왕마에 오른 경주마 루나를 기리는 대회인 ‘루나스테이크스’가 4월 12일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열린다. 팬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루나가 역주하는 모습.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최고의 3세 암말을 뽑는 경마시리즈인 트리플 티아라의 시즌 첫 경주로 4월 12일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루나스테이크스’(Luna Stakes)가 열린다. 올해 신설된 루나스테이크스는 장애를 딛고 여왕마에 오른 경주마 루나를 기리는 대회다.

‘달’ 또는 ‘달의 여신’이라는 뜻을 가진 암말 루나는 2001년 제주도 조그만 민간목장에서 태어났다. 체격이 작고 선천적으로 왼쪽 앞다리를 절었으나 뛰어난 부마(컨셉트윈)와 모마(우수해)의 유전자를 가져 가능성을 보였다.

이성희 마주는 외형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루나를 과감하게 선택해 최고의 조교사에게 맡겨 단련시켰다. 점차 상승세를 보이던 루나는 2005년과 2006년 경상남도지사배, 2007년 KRA컵 마일, 2008년 오너스컵 등 큰 대회를 차례로 석권하며 이름을 알렸다.

루나는 은퇴경주에서도 경마 팬의 가슴에 큰 울림을 남겼다. 경주마로는 고령인 8세였던 루나가 초반에 꼴찌에 머물다가 막판 추입을 통해 선두를 0.1초 차이로 제치고 믿기 어려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2004년 데뷔 후 2009년 11월 은퇴할 때까지 33전 13승을 거두었고, 수득상금도 약 7억5700만 원으로 몸값의 무려 78배에 이른다.

장애를 딛고 여왕에 오른 위대한 루나의 마법 같은 이야기는 영화로 제작됐고 기부로도 이어졌다. 2015년 세상을 떠난 루나는 2020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경주 루나스테이크스로 부활하며 후배 여왕마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시즌 트리플 티아라는 신설된 루나스테이크스를 시작으로 5월 코리안오크스(GⅡ), 6월 경기도지사배(GⅢ)가 열린다. 세 경주의 총 상금이 13억 5000만 원이고, 승점이 가장 높은 말에게는 1억 원(마주 90%, 조교사 10%)의 인센티브를 수여한다. 세 경주를 모두 우승한 경주마에게도 1억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한다.

1년에 딱 한 번 자마를 생산할 수 있는 암말은 하루에도 몇 차례 교배가 가능한 수말에 비해 효율면에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상 위대한 명마는 부마 못지않게 뛰어난 모마를 두고 있다. 우수한 암말군의 보유역량은 말산업 선진국으로 나가는 수순이며,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경주로 평가 받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김동균 조교사, 통산 200승 달성

서울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김동균 조교사가 11일 제5경주에서 소속 경주마 머니챔프의 우승으로 개인 통산 200승을 달성했다. 올해들어 6번째 승리로, 연간 승률 37.5%의 무서운 기세다. 2012년 조교사로 데뷔한 김동균 조교사는 기수 시절 경력도 화려하다. 1998년 기수로 데뷔해 2001년 스포츠투데이배 대상경주에서 우승했으며, 2012년 은퇴할 때까지 총 2592번 기승해 189회 우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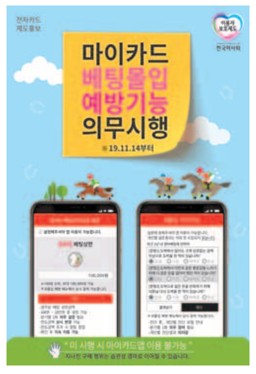
### 마사회, 재활힐링승마 협력시설 모집

한국마사회는 22일까지 재활힐링승마 협력승마시설을 모집한다. 재활힐링승마는 승마를 통한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종사하는 사회공익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전문 교관의 지도 아래 단계적 승마를 실시하며 정신적 치유와 신체건강을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재활힐링승마 협력승마시설 신청대상은 말산업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를 마친 공공승마시설이며,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사회공익적 승마사업에 협력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설에는 렛츠런재단에서 3년간 총 600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정용운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베팅 몰입 예방 ‘마이카드 앱’으로 진단 관리

### 베팅금액 상한 설정·자가진단 기능




마이카드 캠페인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경마 과몰입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이카드 앱에 베팅금액 상한 설정, 자가진단 기능 등을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이카드는 경주정보나 좌석 예매, 발권 등을 이용해 모바일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지난해 11월에 추가된 기능은 마이카드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경주당 베팅금액 한도 설정 및 과몰입 자가진단 설문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한액 설정 및 자가진단은 분기별로 시행되며 고객은 이 두 항목 설정을 마치지 않으면 마이카드 앱을 이용할 수 없다. ‘베팅 과몰입 예방’ 메뉴를 홈 화면에 신설해 이용 고객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상한선 설정 및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

한국마사회는 해당 기능이 업데이트된 이후 2개월 만에 약 1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참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베팅 과몰입 등의 고객 보호 장치를 시행체가 마련하고 마이카드 앱으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기도록 안내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해당 기능을 고객이 적극 활용하도록 마이카드 앱을 비롯해 홈페이지, 경마 방송 등을 활용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 첫 경마일을 기준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형권 한국마사회 사업기획처장은 “마이카드 앱을 이용하는 고객 스스로 부작용이나 과몰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가진단을 하도록 해당 기능을 신설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들 기능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toto 스포츠토토

### 불법스포츠도박 신고는 1899-1119

휴대전화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평범한 스포츠팬은 물론, 최근에는 학생들과 군인들 사이에서도 불법스포츠도박은 꾸준한 이슈거리다.

실제로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해진 군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스포츠도박에 참여하다 적발되는 등 사회 곳곳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져가고 있는 모양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군에 적발된 병사들의 불법도박 건수는 2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에서는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이라고 말한다.

현재 불법스포츠도박 신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 혹은 온라인 신고센터(www.cleansports.kspo.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은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참여자, 승부조작,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받고 있다.

## “레스터시티, 리그 15위 번리 쯤이야” 74%

###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중간집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8일(토)부터 20일(월)까지 벌어지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7경기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번리-레스터시티(7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73.54%가 원정팀 레스터시티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양 팀의 무승부 예측은 14.95%로 나타났고, 홈팀 번리의 승리 예상은 11.52%로 집계됐다.

리그 순위에서 레스터시티와 번리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레스터시티는 현재 리그 3위(14승3무5패)에 올라있고, 번리는 하위권인 15위(7승3무12패)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사우샘프턴에게 1-2로 역전패를 당해 맨체스터 시티(15승2무5패)에게 2위 자리를 내준 레스터시티지만, 제이미 바디와 제임스 매디슨 등이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위권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팀이다. 반대로 번리는 리그에서 4연패를 당하며,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어 손흥민이 뛰고 있는 리그 8위(8승6무8패) 토트넘도 55.42%의 투표율을 얻어 17위(5승7무10패) 왓포드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양 팀의 무승부 예상과 왓포드의 승리 예상은 각각 23.74%와 20.84%를 차지했다.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의 징계, 해리 케인의 부상 등 다양한 악재를 만나면서 리그에서 2연패로 부진했지만, 15일 미들즈브러와의 FA컵 재경기에서 2-1로 승리해 32강 고지를 밟았기 때문에 이 기세를 이어나간다면, 왓포드를 상대로 토트넘이 우세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기다.

라리가에서 에이바르 원정을 떠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예상은 78.51%로 집계돼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 팀의 무승부 예측과 에이바르의 승리 예상은 각각 13.39%와 8.10%로 나타났다. 3위(9승8무2패)에 올라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그 최저 실점(12골)을 기록하고 있는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리그 3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틀레틱 빌바오(76.77%), 비야레알(75.06%), 발렌시아(71.93%)도 7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얻어 손쉬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액으로 즐기는 ‘토토 언더오버’ 도전하세요

### 17일 오전 9시30분부터 3회차 발매

‘소액이라 더욱 재미있는 토토 언더오버에 도전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의 인기 배당률 게임 ‘토토 언더오버’가 오는 17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3회차 발매를 시작한다.

3000원 대의 평균참여금액으로 소액문화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는 ‘토토 언더오버’는 승패를 맞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축구와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혹은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정팀 각각의 최종 득점이 주어진 기준 값과 비교해 낮은지, 혹은 높은지 등 다양한 상황을 예상해 맞히는 배당률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투표 방식의 경우 주어진 각 팀의 최종득점이 기준 값 미만이라면 언더(U)에 표기하면 되고, 초과한다면 오버(O)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 3회차의 경우 오는 19일(일)과 20일(월)에 열리는 이탈리아 프로축구(세리에A) 3경기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2경기, 그리고 미국프로농구(NBA) 2경기를 대상으로 토토팬들을 찾아간다.

자세한 일정을 살펴보면 세리에A에서는 레체-인터밀란(2경기)전과 제노아-AS로마(4경기), 유벤투스-파르마(5경기)전이 선정됐고, EPL에서는 번리-레스터(1경기)전과 리버풀-맨체스터유나이티드(3경기)전이 뽑혔다. 마지막으로 NBA에서는 샌안토니오-마이애미(6경기), 덴버-인디애나(7경기)전이 토토팬들을 찾아간다.